

# 무재해 20배 달성, 원칙과 기본이 바탕

대한정밀주식회사 **곽병국** 과장



## 큰 사고나 작은 사고도 결국 사소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막바지 더위가 한창인 어느 날, 후덥지근한 한 여름 날씨를 기상예보라도 들려주려는 듯, 아침부터 집앞 고목나무에서 매미들이 요란스레 울어 낸다. 얼마 전 충남북부지회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소식, 바로 무재해 달성 소식이다. 그것도 20배달성이란다. 안전 쪽 일을 하면서 10배 달성도 한두 번밖에 접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2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최초로 무재해 20배를 달성한 대한정밀주식회사의 곽병국 과장을 만나러 천안으로 향했다.

## 무재해 20배수 달성,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로 무재해 20배를 달성한 대한정밀주식회사는 주로 합성섬유 방사용 노즐을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곽병국 과장이다. 그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천안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 자라온 천안 토박이이다. 전공과 무관한 피혁회사에 입사한 그는 영업파트에서 일하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관리파트나 자재파트 등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그는 생애 두 번째로 지금의 대한정밀주식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후 관리파트 업무를 맡은 그에게 전 회사에서 쌓아온 경험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외주업체로부터 입고되어지는 가공품들에서 불량이가 계속적으로 발견되게 되었고, 원인을 조사하러 외주업체로 간 그는 작업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더불어 가장 기초적인 정리·정돈 및 안전 수칙도 무시되어 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본격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맡게 된 그에게 안전이란 곧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주로 합성섬유 방사용 노즐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선반, 밀링머신, 프레스 등과 같은 위험기계·기구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바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어지는 상황. 우선 위험기계들을 1, 2, 3등급으로 나누어 같은 장소에 배치하고 각 기계들의 작업 장소를 칸막이로 구획하여 놓았다. 특히 1등급으로 분류된 선반기계 작업장 바로 앞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여 항시 안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 시작 전 TBM에서는 안전작업수칙의 숙지와 위험예지활동을 통한 철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킨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등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곳 대한정밀주식회사 식구들이 갖는 무재해 20배의 의미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모두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것도 많은 상황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무재해 20배를 달성하였다는 것에, 이제는 각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천안에서 안전사고 발생율이 제일 높다고 한다. 그의 바람처럼 그 동안 쌓아온 안전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를 더 열악한 기업에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재근 기자〉